

한·미 재계회의 대표단 접견

윌리엄 로즈 위원장님, 조석래 위원장님, 그리고 양국 재계 대표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대사로 근무하셨던 허바드 대사 다시 뵙게 되니까 더욱 반갑습니다. 정치적 분야에서 친구로서 긴밀한 대화 나누던 사이인데 이제 경제 분야에서 이런 대화 나누게 돼 기쁩니다. 미측 재계 대표 여러분들이 대부분 구면이어서 편안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한미 재계회의 19회까지 계속돼 온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입니다. 양국 관계, 재계와의 관계가 돈독하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번 회의는 양국 최대 관심사라 할 수 있는 FTA 협상 진행 중에 만나게 돼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로즈 위원장께서 혹시 시간 놓치지 않도록 속도 내가자고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점에 관해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FTA 협상은 한미 간 오랜 대화의 토대 위에서 시작한 것이고 그 위에서 한국 정부도 깊이 검토하고 오랫동안 준비한 끝에 협상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쌍방 간 쟁점들을 다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남은 기간에 논의하는 게 짧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변화라는 것은 두렵고 불안한 것이고 한국도

그 동안 미국처럼 세계시장에서 언제나 선진제도라든지 앞선 역량으로 세계시장에서 강자로서, 거래에 있어서 유리한, 우월적 위치에서 세계시장 경영해 본 적 없어서 한국인들의 불안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런 점을 양국의 재계나 정부가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 정부보다 국민에게 보다 더 상세히 설명하고 설득하고 안심시키는 복잡한 절차를 밟아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시간 때문에 내용이 서로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국민들에게 설명했지만, 가지고 있는 시간 안에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협상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시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우리에게 이익이 되고 쌍방에게도 이익이 되는, 시간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두 가지 모두를, 신속성, 내용의 충분성 모두 충족시키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옛날에는 경제적 거래의 장애를 없애기 위해 국가를 만들었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국가 간 관계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하고 앞서가는 게 경제적 관계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랜 노력을 통해 한국과 미국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장애를 해소하고 긴밀하게 만들어 그 결과 양국 모두에게 이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미 재계회의가 양국 국민에게 큰 기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서 한미 FTA가 매우 중요한 계기인 만큼 서로 자기 국민, 재계를 잘 설득해 훌륭히 FTA 성공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